

都市住宅 平面類型別 空間利用의 行態的 特性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Space Use Patterns of Urban Housing

鄭 俊 鉉
Jeong, Jun-hyun

Abstract

This study has a subject for the detached houses and mass housing (*alias dictus*, Apartment) on the Dae Gu urban area, and has a process of surveying and analyzing the actual using states of dweller in the residential space and has an object of finding the behavioral pattern of the spatial using corresponded to the living activities. As its result, a cultural searching for urban housing is disciplined with the positive study for surveying the living contents emerged from the residential spaces.

Limited into sleeping, eating, hosting, familiarity and family ritual, where and how the living activities is appeared according as the housing types and floor types, and what different and common features of its spatial using is possessed, is focused on this study.

As Conclusion, it is found that each living activities are differed in the spatial us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housing and floor types, but genetically are inherited by the traditional custom. Thus two behavial directions of dweller in public residential architecture have to be reconsidered in the urban housing culture.

I. 서 론

주거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상이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투영된 유형적인 사료이며,

한 나라의 문화적 실상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학적으로 볼 때 주거건축은 모든 건축의 규범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금의 주거 건축의 양상은 당시 사회의 정치, 문화, 사상, 생활 감정 등이 집약된 표현체로 본다면, 오늘날 주거건축의 현상을 대중사회의 문화적 현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1996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 결과임.

** 정희원, 대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공박

특히,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주거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양적 공급에 주력한 나머지 주거 건축의 질적 측면인 문화적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 다시 말해 주거건축의 공급은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당시 사회 전반의 문화적 욕구와 주거건축의 이면에 담고 있는 주생활양식, 그리고 개개의 주거욕구를 바탕으로 한 생활적 내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선 공급된 주거유형들이 실재생활에 얼마만큼 부합되며, 또한 이들의 생활 속에 내포된 문화적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측면은 외면한 채, 건설업자 혹은 개발업자들의 상업적 전략에 의하여 획일적인 유형으로 대량 공급되어 왔다.

한편, 주거건축의 생활적 측면에서의 연구로서 이중우·이해성(1988)은 주거공간은 주생활의 내용에 따라 변용 되어진다는 관점에서 주생활의 반응과 주거공간의 변용 관계를 해석하였으며, 조성희(1987)는 전통주택과 현대주택으로 주거유형을 구분하고 주거유형에 따라 주거공간의 사용행태의 특성을 비교 연구 하였다. 그리고 최목화(1991)는 현대도시의 주거생활양식을 재래식 기본생활유형, 재래식 가족중심생활 유형, 질층식 가족중심생활유형, 현대식 기본생활유형, 현대식 사교·여가생활유형 등으로 구분하고 주거생활유형은 거주자의 생활수준과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주택유형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우동주(1991)는 주거생활의 내용을 부분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집합주거계획의 방향으로 제시한바 있으며, 정준현·이중우(1993)는 대중적 경향으로 공급된 도시 단독주택을 평면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평면유형에 따라 생활방식과 공간이용의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대구지역의 단독주택과 공

동주택(이하, 아파트로 통칭하고자 한다.)을 대상으로 이들 주택 거주자들의 공간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생활행위로 표출되는 공간이용의 행태적 특성을 밝히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오늘날 도시주거문화를 규명하고자 하는 한 측면에서 주거공간에서 전개되어지는 생활적 내용을 실증적 조사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범위는 거주자들의 생활 행위중 취침, 식사, 응접, 단락, 의례 행위가 주택형별, 평면 유형별로 어느 공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어떠한 차이성과 공통성을 보이는가를 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일차적으로 주택형별, 평면 유형별 공간이용의 실태를 현장조사하고 아울러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97년 5월~6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분석에 유효한 340예를 SPSS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 조사대상주택의 일반적 특성

1. 거주자의 사회적 특성

조사대상 주택 거주자들의 사회적 변인을 가족형, 가족수, 가구주 연령, 직업, 학력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다.

먼저 대상 가구의 가족형은 전체적으로 부부와 12세 이상의 자녀를 둔 핵가족형이 대부분이며(81.8%),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확대가족형은 7.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족수는 4~5명인 경우가 72.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나, 주택형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곧 도시가구들은 주택형에 관계없이 핵가족 형태가 보편적임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가구주 연령은 사회적으로 안정기에 있는 50대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며

(69.1%), 역시 주택형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직업은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주택형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 조사대상 주택의 거주자 특성

단위 : f (%)

구분	주택형		계	x ²	
	단독주택	아파트			
가족형	Co	1 (0.6)	-	1 (0.3)	2.867 n.s
	Cm	3 (1.7)	2 (1.2)	5 (1.5)	
	Cf	141(79.7)	137(84.0)	278(81.8)	
	Bc	17 (9.6)	10 (6.1)	27 (7.9)	
	B	2 (1.1)	3 (1.8)	5 (1.5)	
	As	13 (7.3)	11 (6.7)	24 (7.1)	
가족수	2-3명	18(10.2)	24(14.7)	42(12.4)	5.841 n.s
	4-5명	126(71.2)	121(74.2)	247(72.6)	
	6-7명	31(17.5)	18(11.0)	49(14.4)	
	8-9명	2 (1.1)	-	2 (0.6)	
가구주연령	30대	7 (4.0)	6 (3.7)	13 (3.8)	1.747 n.s
	40대	30(16.9)	33(20.2)	63(18.5)	
	50대	25(70.6)	110(67.5)	235(69.1)	
	60대	15 (8.5)	13 (8.0)	28 (8.2)	
	60이상	-	1 (0.6)	1 (0.3)	
가구주직업	자영(농경영)	26(14.7)	3 (1.8)	29 (8.5)	20.672 P <.05
	자영(상.공)	74(41.8)	69(42.3)	143(42.1)	
	전문직	6 (3.4)	6(3.7)	12 (3.5)	
	행정관리직	20(11.3)	29(17.8)	49(14.4)	
	사무직	29(16.4)	32(19.6)	61(17.9)	
가구주학력	기타	22(12.4)	24(14.7)	46(13.5)	25.737 P <.001
	국졸	54(30.5)	22(13.5)	76(22.4)	
	중졸	19(10.7)	7 (4.3)	26 (7.6)	
	고졸	54(30.5)	54(33.1)	108(31.8)	
	대졸	47(26.6)	77(47.2)	124(36.5)	
대학원	3 (1.7)	3 (1.8)	6 (1.8)		
계	177(100)	163(100)	340 (100)		

* Co: 부부가족, Cm: 부부+자녀12세이하, Cf: 부부+자녀12세이상, Bc: 조부모+부부+자녀, B: 조부모+부부+자녀+삼촌(고모), As: 형제+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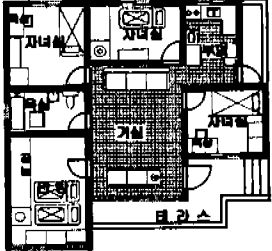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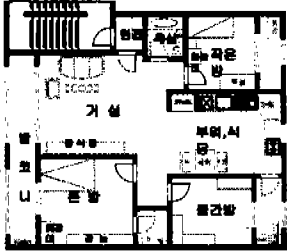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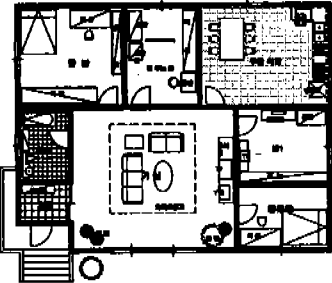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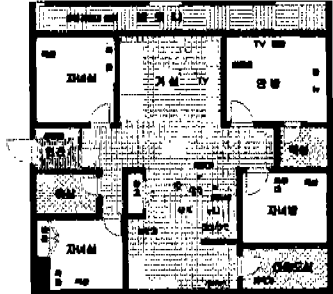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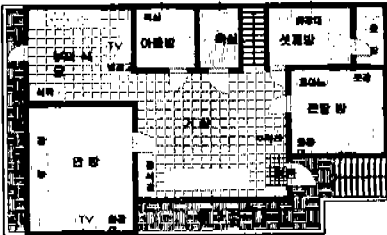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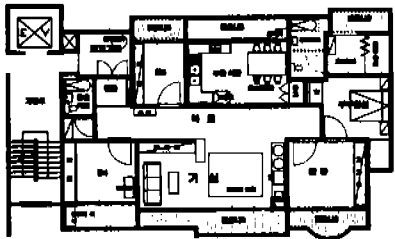
즉, 단독주택의 경우는 상공분야의 자영업이 41.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사무직(16.4%), 자영 농업경영(14.7%) 순인 반면, 아파트 거주자들은 자영상공분야(42.3%), 사무직(19.6%), 행정관리직(17.8%) 순으로 주택유형별로 직업분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무직, 행정관리직에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의 선호가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P <.05). 또한 거주자의 학력도

주택형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대졸학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6.5%). 주택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는 국졸과 고졸이 각각 30.5%, 그 다음이 대졸(26.6%) 순이나,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대졸(47.2%), 고졸(33.1%), 국졸(22.4%) 순으로 학력 분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의 직업분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되며, 학력이 높을수록 아파트 선호가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P <.001).

2. 조사대상주택의 공간적 특성

조사대상주택의 평면형의 분포는 30-40평형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평형별로 선별적인 조사가 아닌 무작위 조사에 따른 조사상의 문제도 있으나, 주거생활의 보편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경우나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국민주택 규모이하나 지나친 대형규모의 평면은 오히려 논의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음으로 제외됨이 마땅한 것으로 본다. (그림 1)은 주택형별, 평면유형별 생활 실태조사의 예이다.

조사대상주택의 공간적 특성은 안방과 거실, 부엌·식당의 형식을 주택형별로 비교하였다. 이는 차후 공간적 특성과 주거 생활행태와 상관성을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안방의 형식은 온돌방의 재래식과 침대를 사용하는 침대식 그리고 별도의 침실이 독립된 독립식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재래식이 대부분인 반면(88.7%),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해 침대식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0.9%). 그리고 거실의 형식은 재래적인 마루방의 형식과 마루에 쇼파가 있는 입식화된 경우, 그리고 거실이 독립적인 거실방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구분하고 이를 주택형별로 비교하였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마루에 쇼파가 놓이지 않는 마루식이 54.8%인 반면, 아파트의 경우는 마루방에 쇼파를 둔 의자생활

주택형 평면형	단독주택	아파트	비고
30평형			156예
40평형			110예
50평형			42예

(그림 1) 주택형별, 평면유형별 조사의 예

형식이 54.8%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또한 부엌과 식당의 구성형식은 대부분이 부엌과 식당이 결합된 DK형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주방만으로 구성된 K형이 아파트에 비해

높은(16.9%) 경향을 보이므로서 역시 주택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거주년수는 10년 이내가 전체적으로 75.6%이나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거주년수가 오래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표 2> 조사대상주택의 공간적 특성

단위: f(%)

구 분	주 택 형		계	x ²	
	단독주택	아파트			
평 면 형	20평형	11 (6.2)	5 (3.1)	16(4.7)	5.466 n.s
	30평형	85(48.0)	71(43.6)	156(45.9)	
	40평형	57(32.2)	53(32.5)	110(32.4)	
	50평형	16 (9.0)	26(16.0)	42(12.4)	
	50평이상	8 (4.5)	8 (4.9)	16(4.7)	
안 방 형식	재래식	157(88.7)	126(78.5)	285(83.8)	7.644 P <.05
	침대식	18(10.2)	34(20.9)	52(15.3)	
	독립식	2 (1.1)	1 (0.6)	3 (0.9)	
거 실 형식	마루방	97(54.8)	67(41.1)	164(48.2)	7.063 P <.05
	마루+쇼파	79(44.6)	93(57.1)	172(50.6)	
	거실방	1 (0.6)	3 (1.8)	4 (1.2)	
부 역 · 식당	DK형	146(82.5)	155(95.1)	301(88.5)	5.286 P <.05
	K+D형	1 (0.6)	1 (0.6)	2 (0.6)	
	K형	30(16.9)	7 (4.3)	37(10.9)	
거주 연수	0~5년	64(36.2)	93(57.1)	157(46.2)	35.572 P <.001
	6~10년	49(27.7)	51(31.3)	100(29.4)	
	11~15년	33(18.6)	17(10.4)	50(14.7)	
	15~20년	26(14.7)	2 (1.2)	28 (8.2)	
	20이상	5 (2.9)	-	5 (1.5)	
계	177(100)	163(100)	340(100)		

1. 취침 행태의 특성

취침행태는 안방과 자녀실을 대상으로 어떤방식으로 취침행태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를 주택형별, 평면형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취침방식은 은들방의 재래식과 침대를 사용하는 침대식, 그리고 독립적으로 침실이 마련된 독립식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표 3> 에서 안방의 경우, 주택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에서는 침대식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 평형이 커질수록 침대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 않다. 따라서 안방의 취침행태의 특징은 주택형과 평면형에 따른 차이는 발견할 수 없음으로 재래식이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실의 경우는 재래식과 침대식으로 구분하여 보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주택형과 평형에 따른 차이성이 통계적 의미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주택형별로 볼 때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의 경우가 침대식의 증가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보이며(P <.05), 또한 낮은 면적에서 높은 면적으로 갈수록, 침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P <.001).

<표 3> 주택형별·평면형별 취침행태

단위 : N=308, f(%)

구 분	안 방			자 녀 실		계	
	재래식	침대식	독립식	재래식	침대식		
단 독 주택	30평형	76(89.4)	8 (9.4)	1(1.2)	58(68.2)	27(31.8)	85(100)
	40평형	54(94.7)	3 (5.3)	-	32(57.1)	25(43.9)	57(100)
	50평형	12(75.0)	3(18.8)	1(6.3)	6(37.5)	10(62.5)	16(100)
	소계	142(89.9)	14(8.9)	2(1.3)	96(60.8)	62(39.2)	158(100)
아 파 트	30평형	58(81.7)	12(16.9)	1(1.4)	37(52.1)	34(47.9)	71(100)
	40평형	43(79.2)	11(20.8)	-	23(43.4)	30(56.6)	53(100)
	50평형	18(69.2)	8(30.8)	-	5(19.2)	21(80.8)	26(100)
	소계	118(78.7)	31(20.7)	1(0.7)	65(43.3)	85(56.7)	150(100)
상 관 성	주택형	F=2.094 n.s			F=5.663 P <.05		df=1
	평형	F=3.160 n.s			F=6.713 P <.001		df=2

Ⅲ. 평면유형별 공간이용의 행태특성

본 장에서는 전체 조사에 중 평면유형별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30, 40, 50평형대로 한정하였으며, 생활 행태는 취침, 식사, 응접, 단란, 의례로 구분하여 주택형에 따른 생활행위의 장소와 행태적 내용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2. 식사행태의 특성

주거내에서의 식사방식은 밥상을 이용하는 재래식과 식탁을 이용하는 의자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식사방식은 대부분 식사 장소에 따라 그 방식이 고정적이다. 예를 들면 안방에서의 식사행위는 밥상을 이용한 재래식으로, 식당에서는 의자식으로 고정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식사행위가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행위가 주택형과 평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식사행위의 장소는 식당이 대부분이다(80.0%). 또한 식탁을 두지 않은 부엌에서도 식사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나(18.8%), 주목할 만한 사실은 거실(40.3%)이나 안방(26.3%)에서 여전히 식사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정준헌, 1993)와 비교해 볼 때, 식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여전히 밥상을 이용한 재래식 식사방식이 습관적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주거공간의 이용적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나, 생활적 측면에서 볼 때 밥상을 이용한 전통적 식사방식이 여전히 전승되어지고 있음은 주거문화적 측면에서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

식사장소에 대한 주택형과 평면유형의 관계성을 보면, 식사장소가 식당인 경우는 주택형에 따라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P < .01$), 주택평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의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안방에서의 식사 행위는 단독주택의 경우가 아파트보다 빈번함을 보임으로써 주택형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P < .05$). 그 외의 식사 장소는 주택형과 주택평형과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거실이나, 부엌이 경우에 따라 식사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주택형별·평면유형별 식사행태

단위 : N=308, f(%)

구 분	식사행위의 장소				응답수 /예수	
	부엌	식당	안방	거실		
단 독 주 택	30평형	15(17.6)	57(67.1)	30(35.3)	30(35.3)	132/85
	40평형	9(15.8)	44(77.2)	22(38.6)	17(29.8)	92/57
	50평형	4(25.0)	14(87.5)	3(18.8)	7(43.8)	28/16
	소계	28(17.7)	115(72.8)	55(34.8)	54(34.2)	252/158
아 파 트	30평형	16(22.5)	60(84.5)	14(19.7)	36(50.7)	126/71
	40평형	10(18.9)	49(92.5)	8(15.1)	25(47.2)	92/53
	50평형	4(15.4)	25(96.2)	4(15.4)	9(34.6)	42/26
	소계	30(20.0)	134(89.3)	26(17.3)	70(46.7)	260/150
계	58(18.8)	249(80.0)	81(26.3)	124(40.3)	512/308	
상 관 성	주택형	F=1.646 n.s	F=7.144 P <.01	F=6.394 P <.05	F=1.114 n.s	df=1
	평면형	F=.675 n.s	F=.381 n.s	F=1.244 n.s	F=.659 n.s	df=2

3. 응접행태의 특성

도시주택에서의 응접행태에 관한 내용의 분석을 안방, 거실, 부엌·식당으로 구분하여 그 중 어느 장소에서 응접행위가 집중되어지며, 또한 응접행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응접방식은 재래적인 좌식과 쇼파 등을 이용하는 의자식, 그리고 좌식과 의자식을 병행하는 복합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행위가 주택형과 평면유형에 따라 어떤 관계성을 띠고 있는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거실의 응접장소로 이용된 경우가 큰 비중을 보이나(74.7%), 안방도 응접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함을 보여주고 있다(65.2%). 그와 반면, 아파트의 경우는 안방이 응접장소로 이용되는 경우는 단독주택에 비해 낮아지나(39.3%), 거실의 응접행위는 매우 집중적이다(90.7%). 또한 부엌·식당에서의 응접행위도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에서는 다소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응접방식에서 주목되어지는 내용은

거실공간이 응접장소로 보편화 되어지고는 있으나 응접방식에 있어서는 좌식과 의자식 중 의자식에 비해 좌식이 더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응접행태의 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생활공간은 입식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생활적 측면에서는 전통적 생활습관이 유전적으로 남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주택형별, 평면유형별 응접행태의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 안방에서의 응접행태는 주택형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거나($P < .001$), 평면형과는 유의한 의미로 볼 수 없다. 반면, 거실의 경우는 주택형과 평면형에 따라 유의한 통계적 의미를 보이고 있다($P < .001$).

이상과 같은 응접행위는 성별과 부모와 자녀 등 가족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안방이 응접장소로 개방되는 경향은 공간이용적 측면에 있어서 안방은 침실 기능뿐만 아니라 여타 생활행위가 집중되어지는 전일적 생활공간으로서, 도시주택에 있어서도 여전히 전통적 생활방식의 일부가 전승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도시주거의 부분문화

〈표 5〉 주택형별·평면유형별 응접행태

단위 : N=308, f(%)

구분	안방		거실			부엌(식당)		비고 응답수/예수	
	좌식	복합식	좌식	의자식	복합식	좌식	의자식		
단독주택	30평형	61(71.8)	1(1.2)	37(43.5)	14(16.5)	6(7.1)	6(7.1)	10(11.7)	135/85
	40평형	34(59.6)	1(1.8)	24(42.1)	17(30.0)	4(7.0)	2(3.5)	6(10.5)	88/57
	50평형	6(37.5)	·	10(62.5)	4(25.0)	2(12.5)	·	2(12.5)	24/16
	소계	103(65.2)	·	118(74.7)	·	·	26(16.5)	·	247/158
아파트	30평형	31(43.7)	·	38(53.5)	13(18.3)	12(16.9)	2(2.8)	10(14.0)	106/71
	40평형	19(35.8)	·	21(39.6)	14(26.4)	13(24.5)	1(1.9)	9(17.0)	77/53
	50평형	7(26.9)	2(7.6)	11(42.3)	7(26.9)	7(26.9)	1(3.8)	6(23.0)	41/26
	소계	59(39.3)	·	136(90.7)	·	·	29(19.3)	·	224/150
계	162(52.6)	·	254(82.5)	·	·	57(18.5)	·	471/308	
상관성	주택형	F=19.219 P < .001	·	F=23.117 P < .001	·	·	F=2.607 n.s	·	df=1
	평면형	F=852 n.s	·	F=6.924 P < .001	·	·	F=1.154 n.s	·	df=2

적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4. 단란행태의 특성

가족단란행위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가족단란행위가 안방과 거실, 부엌·식당에서 어느정도의 비중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란행위는 거실에서 이루어짐이 대부분이나(75.3%), 안방의 비중도 46.4%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부엌·식당에서 간혹 단란행위의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도 보인다(9.4%). 이를 주택형별로 살펴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안방(58.9%)과 거실(65.8%)에서 비슷한 비중으로 단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거나, 아파트의 경우는 안방에서의 단란행위가 줄어들고(33.3%) 거실의 이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85.3%). 한편 단란행위의 방식과 안방의 경우는 좌식으로 이루어지나, 거실의 경우 단독주택에서는 좌식이, 아파트에서는 점차 의자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6〉 주택형별·평면유형별 단란행태

단위 : N=308, f(%)

구분	안방		거실			부엌(식당)		응답수/예수		
	좌식	복합식	좌식	의자식	복합식	좌식	의자식			
단독주택	30평형	50(58.9)	1(1.2)	33(38.8)	12(14.1)	8(9.4)	4(4.7)	4(4.7)	·	112/85
	40평형	35(61.4)	·	21(36.8)	14(24.6)	3(5.3)	·	5(8.8)	1(1.8)	79/57
	50평형	7(43.8)	·	6(37.5)	5(31.3)	2(12.5)	·	1(6.3)	1(6.3)	22/16
	소계	93(58.9)	·	104(65.8)	·	·	16(10.1)	·	·	213/158
아파트	30평형	27(38.0)	·	32(45.0)	11(15.5)	15(21.1)	1(1.4)	3(4.2)	·	89/71
	40평형	16(30.2)	·	20(37.7)	14(26.4)	13(24.5)	2(3.8)	4(7.5)	1(1.9)	71/53
	50평형	6(23.0)	·	7(26.9)	6(23.0)	10(38.5)	1(3.8)	1(3.8)	·	31/26
	소계	50(33.3)	·	128(85.3)	·	·	13(8.7)	·	·	191/150
계	143(46.4)	·	232(75.3)	·	·	29(9.4)	·	·	404/308	
상관성	주택형	F=12.076 P < .001	·	F=15.369 P < .001	·	·	F=0.870 n.s	·	·	df=1
	평면형	F=1.630 n.s	·	F=3.564 P < .05	·	·	F=1.463 n.s	·	·	df=2

이러한 단란행위는 평면형과 평면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안방과 거실에서의 행위는 주택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P < .001$), 거실의 경우는 평면형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P < .05$). 따라서 단란행위는 주택형 평면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거실이 가족적 공간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진다.

5. 의례행태의 특성

의례행태는 통상 관혼상제(冠禮, 婚禮, 喪禮, 祭禮)를 의미하나, 여기에서는 도시주택에서 비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조상숭배의 제사행위, 종교적 의례인 가족예배, 가족의 생일잔치 등의 행위를 종합하여 의례행태로 간주하고 이러한 행위가 어느 공간에서 전개되어지며, 또한 주택형과 평면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 과 같다.

먼저 행위별 장소의 대응 관계에서 제사행위가 어느 장소에서 행하여지는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실에서 보다 (26.0%)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높다(29.9%).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독주택에서는 안방이 제사행위의 장소로 이용되나 아파트의 경우는 거실의 이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 주택에서는 보다 넓은 공간이 제사행위의 장소로 선택되며, 특히 안방이 침실의 기능으로 변화되면서 점차 거실공간이 제사행위의 장소로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종교의식의 장소로서는 안방보다도 거실의 빈도가 높다. 역시 가족전체가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경우 보다 넓은 장소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생일잔치 등 가족적인 기념의식은 간혹 부엌·식당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안방과 거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이때 거실이용의 빈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종래 안방은 침실기능 뿐만아니라

가족적 공간, 의식적 공간 등 전일적 공간으로 인식되어 오던 것이 점차 침실기능이 강화되면서 그 외의 기능은 거실공간으로 전이되는 경향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주거에서 두드러진다.

<표 7> 주택형별·평면형별 의례행태

단위 : N=308, f(%)

구분	안방			거실			부엌·식당		총합수/예수	
	제사	종교의식	기념식	제사	종교의식	기념식	종교의식	기념식		
단독주택	30평형	30(36.3)	6(7.1)	14(16.5)	17(20.0)	7(8.2)	12(14.1)	1(1.2)	1(1.2)	88/85
	40평형	22(28.0)	1(1.8)	2(3.5)	15(26.3)	1(1.8)	10(17.5)	-	-	51/57
	50평형	7(9.8)	-	2(12.5)	4(25.0)	-	7(43.8)	-	1(6.3)	21/16
	소계	59(37.3)	7(4.4)	18(11.4)	36(22.8)	8(5.1)	29(18.4)	1(0.6)	2(1.3)	160/158
아파트	30평형	17(23.9)	3(4.2)	9(12.7)	17(23.9)	2(2.8)	19(26.8)	-	2(2.8)	61/71
	40평형	12(22.6)	5(9.4)	2(3.8)	17(32.1)	6(11.3)	14(26.4)	-	1(1.9)	57/53
	50평형	4(15.4)	-	-	10(38.5)	4(15.4)	6(23.1)	-	-	24/26
	소계	33(22.0)	8(5.3)	11(7.3)	44(28.3)	12(8.0)	39(25.0)	-	3(2.0)	150/150
계	92(29.9)	15(4.9)	29(9.4)	80(26.0)	20(6.5)	68(22.1)	1(0.3)	5(1.6)	310/308	
상관성	주택형	F=14.325 P<.001			F=6.887 P<.001			F=.014 n.s		df=1
	평면형	F=.152 n.s			F=2.381 P<.05			F=.801 n.s		df=2

6. 생활행태의 상관성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주거형별, 평면형별 생활행태의 내용이 물리적 조건이외에 가구주의 사회적 변인과 공간 구성적 변인이 어떠한 상관성을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사회적 변인은 가족형태, 가구주 연령, 직업, 학력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변인은 안방 형태, 거실형태, 부엌·식당형태를 변인으로 하였다.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표 8>과 같다.

먼저, 안방과 자녀실을 대상으로 한 취침행태는 사회적 변인과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주택형별, 평면형별로도 유의한 차이성을 보이지 않듯이 안방을 재래식 자녀실은 침대식이 보편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공간적 변인은

안방의 경우 안방형태($P < .001$), 거실형태($P < .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며, 자녀실의 경우도 공간적 변인인 안방형태 거실형태 부엌·식당형태가 상호 상관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유의한 통계적 의미를 보이고 있다.

식사행태의 경우는, 사회적 변인과 상관성을 보이는 것은 부엌·식당에서의 행위가 연령($P < .05$)과 상관성을 보이며, 안방의 경우는 사회적, 공간적 변인과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연령이 낮을수록 식사행태가 입식화 추경향으로 이해되며, 안방에서의 식사 행태는 여러 변인들과 상관없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단란행태 역시 안방에서의 행위는 사회적, 공간적 변인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 거실에서의 단란 행위는 연령($P < .05$), 직업($P < .05$), 거실형태($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응접행태가 안방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는 사회적, 공간적 변인과 상관없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거실의 경우에는 연령($P < .05$), 안방 형태($P < .001$), 거실 형태($P < .001$)와의 상관성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다.

끝으로, 의례행태는 안방에서의 경우는 사회적, 공간적 변인과 상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거실의 경우는 사회적 변인은 상관성을 보이지 않으나 공간적 변인인 안방의 형태($P < .05$), 거실형태 ($P < .001$)와는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주거생활행위는 주택형별, 평면형별로 행위의 양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변인으로서의 연령과 직업이 대체로 상관성을 보이며, 공간적 변인은 안방형태, 거실형태가 생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이러한 원인은 주거공간에서의 생활양식은 일련의 학습화 과정을 거쳐서 습득되기 때문에 성장과정의 사회적 배경이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기성세대는 유교

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화 교육과정에서 근대화 과정에 의한 서구적 교육과정으로의 전이단계에 적용하면서 가치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주생활에 있어서도 전통적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우리 자신의 중심적 삶의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주거공간 이용행태의 상관성 분석

구분	사회적 변인				공간적 변인			
	가족형	연령	직업	학력	안방형태	거실형태	부엌형태	
취침 형태	안 방	F=2.027	F=2.565	F=.095	F=.318	F=559.2 P < .001	F=4.674 P < .01	F=.324
	자녀실	F=1.992	F=2.113	F=.103	F=.000	F=2.767 P < .05	F=18.10 P < .001	F=4.002 P < .05
식사 형태	부엌·식당	F=.671	F=2.491 P < .05	F=.2116	F=.774	F=.213	F=1.614	F=.050
	안 방	F=.471	F=.638	F=.063	F=1.587	F=.401	F=2.736	F=.525
단란 형태	안 방	F=.002	F=.000	F=.609	F=.019	F=.237	F=.113	F=.021
	거 실	F=.403	F=2.986 P < .05	F=2.795 P < .05	F=.325	F=.705	F=30.16 P < .001	F=2.231
응접 형태	안 방	F=.359	F=.037	F=1.327	F=1.002	F=2.053	F=.102	F=.105
	거 실	F=.648	F=3.428 P < .05	F=.450	F=.285	F=8.905 P < .001	F=72.65 P < .001	F=1.320
의례 형태	안 방	F=.000	F=.032	F=.875	F=.624	F=.914	F=.000	F=.000
	거 실	F=.205	F=1.233	F=.924	F=.039	F=2.553 P < .05	F=9.466 P < .001	F=.601

IV. 결 론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주거형을 대상으로 거주자들의 공간이용행태가 어떠한 차이성과 공통성을 띠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조사대상 주택 거주자들의 사회적 특성 중, 가족형은 전체적으로 부부와 12세 이상의 자녀를 둔 핵가족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81.8%), 가족 수는 4-5명인 경우가 72.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이는 도시의 가구들은 주택형에 관계없이 핵가족 형

태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구주 연령은 사회적으로 안정기에 있는 50대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69.1%). 그리고 직업은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주택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또한 거주자의 학력도 주택형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보인다($P < .001$).

2) 주택형별 공간적 특성은, 안방의 경우 단독주택은 온돌식이 대부분인 반면(88.7%),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해 침대식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0.9%). 그리고 거실의 형식은 단독주택의 경우 마루에 쇼파가 놓이지 않는 마루식이, 아파트의 경우는 마루방에 쇼파를 둔 의자식이 비교적 높아 주택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또한 부엌과 식당의 구성형식은 대부분이 부엌과 식당이 결합된 DK형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주방만으로 구성된 K형이 아파트에 비해 높은(16.9%) 경향을 보이므로서 역시 주택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거주년수는 10년이내가 전체적으로 75.6%이나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거주년수가 오래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3) 주택형에 따른 행위의 장소와 행태적 내용의 차이성과 공통성을 분석한 결과, 취침 행태는 안방의 경우 주택형과 평면형에 따른 차이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래식이 보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자녀실의 경우는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의 경우가 침대식의 증가 경향 보이며($P < .05$), 또한 낮은 평형에서 높은 평형으로 갈수록, 침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P < .001$). 식사행태는 식사장소가 식당인 경우는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P < .01$), 평면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의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안방에서의 식사 행위는 단독주택의 경우가 아파트보다 빈번함을 보임으로써 주택형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P < .05$). 응접행태는 단독주택의 경우 거실이 응접장소로 이용된 경우가 큰 비중을 보이나(74.7%), 안방도 응접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함을 보여주고 있다(65.2%). 그와 반면 아파트의 경우는 거실에서의 응접행위가 매우 집중적이다(90.7%). 또한 부엌·식당에서의 응접행위도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에서는 다소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응접방식은 의자식에 비해 좌식의 방식이 더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거실의 경우 주택형과 평면형에 따라 유의한 통계적 의미를 보이고 있다($P < .001$). 단란행위는 거실에서 이루어짐이 대부분이나(75.3%), 안방의 비중도 46.4%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부엌·식당에서 간혹 단란행위의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도 보인다(9.4%). 단란행위의 방식은 거실에서의 경우 단독주택에서는 좌식이 아파트에서는 점차 의자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단란행위는 주택형과 평면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거실이 점차 가족적 공간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례행태 중 제사행위는 전체적으로 볼 때, 거실에서 보다(26.0%) 안방에서 행하여지는 경우가 비교적 높다(29.9%).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종교의식의 장소로서는 안방보다는 거실의 빈도가 높다. 역시 가족전체가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경우 보다 넓은 장소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생일잔치 등 가족적인 기념의식은 간혹 부엌·식당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거실의 이용빈도가 월등히 높은 경향을 보인다.

4) 조사대상주택의 물리적 조건외에 가구주의 사회적 변인과 공간 구성적 변인이 주거생활 행태와 어떠한 상관성을 보이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 먼저 안방과 자녀실을 대상으로 한 취침행태는 사회적 변인과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 반면, 공간적 변인중 안방행태($P < .001$), 거실행태($P < .01$)는 안방의 취침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며, 자녀실의 경우도 공간적 변인이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식사행태의 경우는 연령(P

(.05)과 상관성을 보이며, 안방에서의 식사 행태는 여러 변인과 상관없이 생활적 관습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단란행태는 거실에서의 단란 행위가 연령($P < .05$), 직업($P < .05$), 거실형태($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응접행태 역시 안방에서의 행위는 사회적, 공간적 변인과 상관없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거실의 경우에는 연령($P < .05$), 안방 형태($P < .001$), 거실 형태($P < .001$)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다. 끝으로, 의례행태도 거실에서 행하여 지는 경우 사회적 변인은 상관성을 보이지 않으나, 공간적 변인인 안방형태($P < .05$), 거실형태($P < .001$)와는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주거생활행위는 주택형별, 평면형별로 행위의 양태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생활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생활습관이 유전적으로 남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 대중적 주거건축의 거주자들의 양면적 생활태도는 주거문화의 한 측면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2. 이중우, "체·용사상에서 본 주거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8.
3. 이중우·이해성, "주생활 반응에 의한 주거공간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4권 4호, 1988, 8.
4. 임창복, "한국 도시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화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5. 우동주, "주거생활의 부분문화를 중심으로 한 집합주거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 1991
6. 정준현, 이중우, "도시 대중주택 공간이용의 행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93.10
7. 정준현, "도시단독주택의 공간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1993.
8. 조성희, "주택유형에 따른 주거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7
9. 최목화, "현대도시의 주거생활양식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991.6
10. 최효승, "도시대중주택에 나타난 유전적 건축공간언어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6
11. 홍형욱,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6
12. Rapoport, A.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Hall Inc, 1977.
13. Aminu F. A.,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bases for Housing preference in - dia, Nigeria"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Michigan, 1977)
14. El-Khatib, A., "Housing in Nablu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housing satisfaction in three plestinian sub-groups" (Doctoral dissertation, City Univ. of New York, 1985)
15. Lee, S. C., "Housing adjustment of Korean family in American society"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 1892)

